

# 전남도, '내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 속도 낸다

정부, 적극 설립 검토 방침 재확인  
목포대·순천대 3월 정원 배정 기대  
오는 4월 대학통합 승인 목표 총력  
김지사 "모든 행정·도민 역량 집중"

전남도가 도정 최대 현안이자 도민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올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정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도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까지 끌어내며 최종적으로 지역의 상생과 화합정신에 부합하는 통합의대를 추천해 정부 요청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글로벌 대학에 나란히 선정된 양대학의 통합은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의 선도모델로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국립대의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대학은 오는 2026년 3월 통합대학교 개교를 목표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했으며, 12월 31일 '(가칭) 국립한국제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사를

밝히면서,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의료 불모지'인 전남에 의대 신설은 증원 문제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방침도 변함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의대 정원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도 의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에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혀 전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전남도는 정국 불안과 무관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 최대 취약지인 전남에 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께 천명한 약속사항으로 공문보다도 더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남도가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했으니, 이제는 정부가 약속대로 전남도 통합의대에 정원을 배정하고, 신설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전남도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자신감과 의지를 가지고 두 대학과 함께 통합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 정원 배정 확정과 4월 대학통합 승인을 목표로 2026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정 국정협의회, 올해 신설될 교육부의 '의대교육지원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계에도 전라남도 의대 설립 당위성을 피력하며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가족과 전통놀이 체험

가족단위 시민들이 30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설맞이 한마당에서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김영록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 완결성을 위

해 전남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며 "온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 통합의대 설립

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강기정·김영록 "구속기소 尹, 준엄한 법의 심판을"

"역사에 분명한 교훈 남겨야"  
"사필귀정...정의 바로세워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강 시장은 지난 27일 "검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26일 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사법부를 향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도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정의 바로세우고 국민통합 시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구속기소했다"며 "이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정의를 바로세울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열받게 하는 궤변만 늘어놓는 윤 측 변호인들 주장과 구속기소하라는 말은 잘 안들리고 석방하라가 마치 대세인 듯 기세 등등 하더니 (검찰 기소는) 사필귀정이다"며 "윤석열은 결국 단죄되고 현재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럴싸한 내란 선동 세력들의 주장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나라와 민주주의만을 생각할 일"이라며 "정의를 바로세우고 상식과 순리의 국민통합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 전남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생활 물류비 등 192억 지원

전남도가 섬 주민 해상복지 실현을 위해 여객운임과 물류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92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모범사례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물류비 지원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올해도 천원 여객선 운

임지원 등 여객 분야 3개 사업에 172억원, 섬 지역에 발생하는 추가 택배 비용, 생필품 운송비 등 물류 분야 3개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된 11개 소외 도서(9개 항로) 뱃길 운영을 본격 추진해 그동안 교통편이 없던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지역경제 살리기 전남일보 연중 캠페인

#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동구 | 광주광역시서구 | 광주광역시남구 | 광주광역시북구 | 광산구